

‘東 번쩍, 西 번쩍’ JY 광폭행보, ‘불기소’에 탄력 받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수사심의위 후 국내외 현장경영 위기 상황서도 극복에 앞장 사회공헌 활동도 대폭 늘려 검찰 기소여부에 이목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경영진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를 방문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출귀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뉴 삼성’을 향한 의지를 확고히 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후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후 4차례에 걸쳐 현장 경영을 진행했다.

5월 18일 중국 시안반도체를 방문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6월 23일에는 수원 생활가전 사업부를 찾았다.

특히 6월 26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에는 매주 현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6월 30일에는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를, 이달 6일에도 수원사업장 C랩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을 만나 코로나

19 등 위기 극복 노력을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기르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개혁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 있다”며 신기술 개발을 독려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에서는 “지치면 안된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뉴 삼성’을 향한 개

혁 발걸음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당장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6월 24일에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를 삼성리서치 소장으로 내정하며 인공지능(AI) 개발 역량을 제고했다. 지난 1일에는 연말까지 석박사급 연구 인력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고급 인력 확보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회공헌 활동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22일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글로벌로 확대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마스크 생산 효율을 제고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힘을 보탤다. 같은 달 25일에는 협력사와 산학,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한 ‘K집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5일에는 ‘사랑의 열매’와 사회복지 공동사업 ‘나눔과 꿈’을 다시 한 번 이어가며 사회문제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사내 문화도 재빠르게 바꾸는 중이다. 5월 29일에는 서울 서초사옥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용희 씨와 합의를 이뤄내며 노사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노사관계 자문 그룹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은 이 부회장이 직접 결정해야만 하는 내용들로,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비로소 다시 경영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삼성도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최근 몇년간 ‘사법 리스크’로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이 부회장 활동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 출장 등에서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라

고 말했다. 아직 검찰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검찰 내부 갈등으로 논의가 다소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8일 열리는 주례보고 이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성에는 최근 여러 외부 리스크에 직면해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1a D램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1위인 대만 TSMC가 미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1위’ 계획에도 위기감이 고조됐다. 초나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오너 경영’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초나노 경쟁에 돌입하면서 얘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조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사내 벤처 ‘C랩’ 찾은 JY “오직 미래만 보라” 응원

애로사항 청취하고 자유롭게 소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로 가는 꿈을 응원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6월 수원사업장을 찾아 사내 벤처프로그램 ‘C랩’에 참여중인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 사장과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도 동석했다.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에 C랩에 참여한 계기와 사내 벤처 활동 어려움 및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창의성 개발 방안과 도전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 부회장은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고. 지치지 말고 도전해 가자.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C랩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기술이 전시된 ‘C랩 갤러리’를 돌아보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과를 직접 체험해보고, 개선을 제안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도입한 사내 벤처육성 프로그램이다. 참여 임직원들에게는 1년간 현업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직접 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타트업으로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C랩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공하고, 2018년부터는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로 확

장했다. 그동안 163명 직원들이 45개 기업을 창업했다. /김재용 기자

‘꿈의 반도체’ 성큼... 삼성, 신소재 발견

‘비정질 질화붕소’ 집적도 향상

삼성전자가 ‘꿈의 반도체’를 한단계업 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6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최근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공동으로 신소재 ‘비정질 질화붕소’를 발견했다.

이 소재는 2차원 소재로, 반도체 기술 난제인 ‘집적도 향상’의 새로운 열쇠로 평가된다. 집적도가 높아지면 회로 간 간섭 등 기술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기적 간섭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더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

앞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16년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그래핀을 ‘꿈의 신소재’로 불렀었다. 그래핀은 원자 수준에서도 도체나 부도체,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A4 용지 10만분의 1 두께로 얇고 잘 휘어지면서도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다. 좁은 육각구조 형태로 저항을 줄이는 장벽 역할도 할 수 있다.

비정질 질화붕소는 그래핀의 파생 소재로, 질소와 붕소 원자로 이뤄졌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분자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기장 간섭을 의미하는 유전율을 세계 최저 수준 1.78로 낮추고, 반도체 기판 위에서 400℃ 저온 환경에서도 큰 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비정질 질화붕소를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특히 고성능 반도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핀 개발 프로젝트 리더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신현진 전문연구원은 “그래핀을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온(400℃) 환경에서 대면적으로 웨이퍼 위에 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합기술원은 그래핀 양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응용 분야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종합기술원은 그동안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만들어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연구개발해 왔다. 2012년에는 그래핀을 활용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개발했고,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웨이퍼 위에 순수한 그래핀 층 형성 및 대량생산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2017년에는 그래핀 구조를 랜덤한 형태로 연결하고 대면적 합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대학과의 기술협력 등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2D 소재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는 박성준 상무는 “최근 2D 소재와 여기서 파생된 신소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공정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기업의 추가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며 “신소재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정 적용성을 높여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메모리반도체 매출 12.6% 큰폭 증가 전망”

>> 1면 ‘3電, 반도체 효과’서 계속

신영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사업부 매출은 1분기보다 약 6.4% 증가한 18조 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1분기 대비 12.6%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디스플레이 사업부 매출액은 1분기보다 19.5% 감소하고,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M사업부 매출액은 20.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E 사업부 역시 1분기보다 9.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반도체가 2분기 실적에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또다른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도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2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조 78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시장이 성장하면서 모바일을 제외한 서버·PC

등 D램 수요가 급증했고, 메모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 D램과 낸드 출하량은 기존 추정치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D램 매출액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서버 및 PC D램 고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20%, 14% 이상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반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시간이 있는 반면 모바일 시장 회복이 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이끌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서버 메모리 반도체 수급 상황이 하반기에는 공급사에게 불리해지거나,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수급 상황에서는 유리해질 전망”이라면서 “이번 디램 가격 하락은 단기간 조정에 그치고 2021년 2분기에 반등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